



[라벨링] 인도 당국, 식물성 제품에 '낙농 용어' 표기 금지

- 전자상거래 대상 제품 표기 위반업체 조사 나서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식물성 제품에 대해 낙농 용어 표기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최근 당국은 두유, 아몬드 등 다양한 식물성 식음료 제품에 낙농 용어가 표기되어 판매되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계속해서 접수됨에 따라 '식품 안전 및 표준규정' 개정안에 의거 식물성 식음료의 라벨에 부착된 낙농 용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식물성 식음료업체는 비(非) 유제품에 대해 낙농용어 또는 그와 비슷한 발음이나 철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한편, 식물성 식음료에 사용되는 '커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코코넛 밀크, 땅콩버터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기준청은 대부분의 식물성 식음료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즉시 조사를 착수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제품 라벨 수정 등 시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tribuneindia.com / livemint.com, 9월 5일자 >

[지속가능] 오스트리아, 100% 재활용 학교우유 포장용기 공급

- 유리병 대비 폐기물 및 탄소배출량도 적어



오스트리아가 100%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를 활용해 학교우유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스트리아 북부의 오버외스터라이주(州)에서는 매일 약 3만 6천명의 학생들이 우유, 발효유, 코코아 등 우유급식을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포장재 업체는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100% 재생 플라스틱(rPET)을 개발해 학교우유 포장용기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용기는 100%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며 유리병 보다 폐기물도 적게 발생하고 탄소배출량도 30% 이상 저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된 학교우유 용기를 재수거해 세척 및 파쇄 작업을 거쳐 식품 포장용 컵으로 재활용될 계획이다.

< 출처 : packagingeurope.com, 9월 1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